



네번째 이야기

혹시 나도 성포자가 아닌가?

[신앙 에세이①]



성경학자 린더 켈(Leander Keck)은 「해석」(Interpretation)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기고문에서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때다. 지금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서사성(narrativity, 敍事性)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과 찬양을 회복시킬 때다."라고 말했다.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기독교 리더들과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원인을 해석과 적용의 관계에서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관계한다고 본다.

월터 브루그만은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에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말씀의 기능에 대해 말하면서 해석의 원리를 다음의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수사적 분석을 통해 텍스트 안에 있는 예술적 상상과 그 생성 작업을 간파한다. 둘째, 단어 연구를 통해 그 텍스트 통일성의 관계와 연관성을 찾아 그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들의 그물에 고립되지 않는 상태로 결합한다. 셋째, '어떤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 왜냐하면 최고의 신학 주장과 가장 신실한 해석

안에서도 이데올로기(ideologie)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텍스트의 수사적 분석을 통한 상상력의 힘, 단어 연구의 통일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여되면 왜곡된 해석에 이르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잘못된 관점과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성경연구방법의 세미나를 수년간 인도 하면서 해석의 방법은 전수할 수 있으나 정당한 해석에 대해 실제적인 순종의 경험, 감정을 동반한 경험의 누적을 통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학습서에서는 해석의 개념과 관련하여 얼마나 해석을 잘하느냐 하는 것은 본문에 대해 해석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인 해석의 능력은 해석적 질문과 직결된다.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에 따른 해석을 이해함에 있어 적용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와 분리된 상태로 인식하는 것은 해석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한 것으로 텍스트를 정보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해석자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해석이 적용과 분리되어 있는가?' 필자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였지만,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비교, 분석한 후에 정보로 이해만 하는 해석자에게는 해석의 지평이 닫혀버린다는 것이다. 실제 성경을 읽어내는 현장에서는 해석한 바를 정보(information)

로만 파악하지 않고 변혁(transformation)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해석의 질문도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확연히 다를 수 있다. 긴 시간 뇌과학을 연구한 박문호 박사는 이해는 일반화를, 기억은 개별화를, 훈련은 자동화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성포자가 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이해를 너무 강조하여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해석을 사실상 포기하는 사람, 성포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성포자가 만들어지는 주요한 원인은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개별화된 좋은 감정의 기억을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교회나 단체에서 우아하게 봉사하고 있는 리더라도 사실상 성포자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끊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말씀 적용의 좋은 기억을 소환해본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대학 때부터 순종과 경험으로 나에게 입증된 말씀이다. 방학과 학기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대출 한번 받지 않고 나름 풍성하게 대학 생활을 마친 후, 직장생활을 하며 현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천수답을 경험하고 있다.

[글쓴이 박기성 목사]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18년 근무한 후 BEE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퇴직하고 2004년부터 세무법인 운영하면서 BEE 사역을 섬기고 있다. 사역 현장의 필요로 백석대 신대원과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8년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아내 林惠淑, 아들 乾友(하나님의 친구, 출33:11), 딸 瑟智(여호와의 감동, 왕상3:15-16)가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안이나 자혜 있는 자나

야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3년 BEE 섬김프로젝트!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여 선교지와 관계를 강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2023년 'BEE 현지인 선교사(과테말라 선교사 9명) 생활비 일부 후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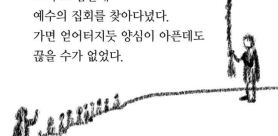
(후원 기간: 2023. 03 ~ 2025. 02

Tel 02- 822-9480 내선 102)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내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느낌이 시작되었다  마테 (레위)	내 이름은 레위. 직업은 세리. 가버나움 세관에서 관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아버지는 내가 학자가 되기를 바라셨었다. 어릴 때부터 유능한 스승들께 역사와 성경을 배웠다. 하지만 힘없는 속국의 역사와 글이 대체 무슨 힘이 있나!  모놀로그 in 바이블	나는 큰돈을 쥐고 싶었다. 부가 곧 권력인 시대니까. 10년 전 로마가 세금징수권을 경매에 부쳤을 때 낙찰자에게 뇌물을 쓰고 한 자릴 사서 이 일을 시작했다. 뇌물로 생긴 빛은 새를 더 많이 거둬서 값으면 되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금고를 채워가는 기분은 끝내졌다. 사치도 마음껏 부렸다. 어차피 세율을 내 맘대로 정하니, 걱정할 것이 없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단지 내 속을 고약하게 굼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노래였다. "이름만 거룩한 레위, 인생은 매국노 쓰레기!"  모놀로그 in 바이블
어느 날 우연히 예수의 집회장에 가게 되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듣고 있다가 불현듯 떠오른 질문. "...너, 썬찮은 거니?"  모놀로그 in 바이블
바로 그날부터였다. 내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느낌이 시작된 것은... 그 후로 남몰래 예수의 집회를 찾아다녔다. 가면 얻어터지듯 양심이 아픈데도 끊을 수가 없었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명하니 있다가, 날 알아본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똥에 허둥지둥 그곳에서 달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세관으로 날 찾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을 따라나섰다. 그분이 나를, ... 병든 죄인의 토굴에서 꺼내 주셨다.  모놀로그 in 바이블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